

육지(陸贄)가 작성한 사면 관련 문서*

- <봉천 개원 대사면령(奉天改元大赦制)>을 중심으로

홍승직**

< 목 차 >

- I. 배경
 - II. 사면 문서의 내용
 - III. 사면 문서의 형식
 - IV. 문학사적 의의
-

I. 배경

당대 덕종 건중(建中) 4년(783) 경원(涇原)¹⁾ 지방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장안까지 휩박하자, 덕종은 하는 수 없이 봉천(奉天)²⁾으로 피난을 떠났다.³⁾ 당시 주체(朱泚)가 동생 주도(朱滔)의 모반에 연루되어 절도사를 삭탈당해 장안에 억류되어 있었기에, 반란군은 주체를 수령으로 추대했다. 주체는 이를 받아들여 국호를 진(秦)으로 선포하고, 이듬해 덕종 흥원 원년(784) 국호를 한(漢)으로 다시 선포했다. 그 후 약 반 년이 지나 주체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한때 봉천까지 추격하여 포위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고, 덕종에게는 크나큰 위협이었다.

당시 덕종을 끝까지 수행했고 덕종 또한 가장 신임했던 인물은 고공낭중 육지(陸贄: 754-805)⁴⁾였다. 연이은 반란을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순천향대학교 교수 연구년제에 의하여 연구하였음.

** 순천향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涇原: 지금의 감숙 경천(涇川)과 영하 고원(固原)·진원(鎭原) 일대.

2) 奉天: 지금의 섬서 건현(乾縣).

3) 《舊唐書》, 卷 200, 〈朱泚列傳〉 및 《資治通鑑·唐紀四十四》 등 참조.

4) 陸贄: 자는 경여(敬輿), 소주(蘇州) 가흥(嘉興) 사람이다. 대력(大曆) 8년(773) 진사 급제하고, 박학평사과에 합격하였으며, 위남위(渭南尉)로 발탁되어, 감찰어사로 옮겼

육지가 덕종에게 바란 것은 우선 덕종 본인이 실정을 반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반란군을 회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면령을 내릴 것을 건의했다. 당시 덕종의 조령은 육지가 작성을 담당했다. 사면령 문서를 자신이 쓰는 기회를 얻게 된 육지는 이후 고문을 쓰는 사람이면 사표로 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그 문장력을 발휘하여 덕종을 가르치고 적군을 회유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 문서를 쓰게 되었다.

마침 흥원(興元) 연간(784) 사면령을 준비하게 되어, 황제가 육지에게 초고를 부탁하며 상세한 내용을 토의하게 했다. 육지가 보기에 황제는 덕을 지키는 것이 굳건하지 못하여, 곤경에 빠지면 잘 해보려고 생각하지만 평온하면 쉽게 교만해지므로, 자극을 주어서 의지를 강하게 하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상의 위협을 겪고 나면 평상의 조치로 안정될 수 없고, 비상의 분규를 풀려 하면 평상의 영(令)으로 깨우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무기와 갑옷을 모두 다 사용하시고 재물과 금전을 모두 다 써버리셨고, 경사에서 변고가 생기고 도적이 궁궐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가왕(假王)인 자가 넷이요, 제(帝)를 칭한 자가 둘에다가, 그밖에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이루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관을 풀고 대중의 마음을 수습하는 길은 오직 사면령을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느낌 받는 것이 이미 그리 깊지 않을 텐데, 말까지 절박하지 않으면 또한 누가 감화를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성이 극에 달하지 않으면 감화를 받을 수 없고, 손실이 극에 달하지 않으면 소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과실을 누우치는 것이 깊지 않으면 안 되고,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꼭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초치하는 범위가 넓지 않으면 안 되고,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하 사람들이 듣고 일순간에 확 변하여 너도나도 혜택을 받고자 하려고 하게 하면, 어찌 따르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개혁을 해야 할 영역과 조목은 이미 별도로 봉인하여 올렸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 과실을 이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고치는 것이 어려우며, 선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역》에서 ‘성인이 사람들 마음

다. 덕종이 즉위하여, 그를 불러 한림학사에 임명했다. 주체(朱泚)의 반군을 피하여 덕종을 봉천(奉天)까지 수행하여, 고공낭중(考功郎中)이 되었고, 이회광의 반란을 피하여 양주(梁州)까지 수행하여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되었고, 수도에 돌아와 중서사인이 되었다. 정원 7년(791) 병부시랑에 임명되었고, 정원 8년(792) 중서시랑동평장사에 임명되었고, 정원 10년(794) 태자빈객에 임명되었고, 정원 11년(795) 충주별가로 폄직되었다. 순종이 즉위하여 돌아오라고 불렀는데,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52세, 병부상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선(宣)이다.

에 감화를 일으켜 천하가 평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감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정성이 마음에서 발휘되어 겉모습에 드러나는 것인데, 겉모습에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말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을 살펴야 하고, 마음은 반드시 겉모습과 부합해야 하니, 세 가지가 부합해야 감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우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선언하고, 실행할 수 없는 것은 보류하십시오. 구차하게 말씀만을 일삼아서 거듭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⁵⁾

육지 입장에서 반란군을 회유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덕종이 자신의 실정을 인정하고 혜택을 늘려주어 민심이 반란군 편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으로, 그러한 반성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해야 했다. 그래서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감동과 배려가 넘치는 황제 반포 공문을 쓰게 되었다.⁶⁾

본고는 육지가 대필한 덕종의 사면령 문서의 내용과 형식 및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5) 《新唐書》157卷, 列傳82, 〈陸贄〉: 「會興元敕令方具, 帝以稿付贄, 使商討其詳. 贄知帝執德不固, 困則思治, 泰則易驕, 欲激之使彊其意, 卽建言: “履非常之危者, 不可以常道安; 解非常之紛者, 不可以常令諭. 陛下窮用兵甲, 竭取財賦, 變生京師, 盜據宮闈. 今假王者四凶, 僭帝者二豎, 其它顧瞻懷貳, 不可悉數. 而欲紓多難, 收群心, 惟在敕令而已. 動人以言, 所感已淺, 言又不切, 人誰肯懷? 故誠不至者物不感, 損不極者益不臻. 夫悔過不得不深, 引咎不得不盡, 招延不可不廣, 潤澤不可不弘. 使天下聞之, 廓然一變, 人人得之所欲, 安有不服哉? 其須改革科條, 已別封上. 臣聞知過非難, 改之難; 言善非難, 行之難. 易曰: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 夫感者, 誠發於心, 而形於事, 事或未諭, 故宣之於言, 言必顧心, 心必副事, 三者相合, 乃可求感. 惟陛下先斷厥志, 以施其辭. 度可行者而宣之, 不可者措之. 無苟於言, 以重取悔.”」

6) 육지가 작성한 사면 관련 문서는 《육지집(陸贄集)》 1권에 두 편, 2권에 두 편, 3권에 다섯 편, 총 아홉 편이 수록되어 있다. 황제의 명령을 하달하는 공문에 속하는 제고(制誥)를 담당 부서에서 기초(起草)하는 것이 관례였거니와, 육지는 덕종(德宗)의 제고(制誥)를 대필한 것이다. 주로 주체(朱泚: 742-784), 이회광(李懷光: 729-785), 이희열(李希烈: ?-786)의 반란을 평정하고 나서 내린 조치이다.

II. 사면 문서의 내용

육지가 덕종의 대필로 작성한 사면령 문서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여기서는 우선 문집 첫머리에 나오는 〈봉천 개원 대사면령(奉天改元大赦制)〉을 사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서기 784년 주체의 난을 평정한 이후 원래 건중(建中) 5년차에 해당되는 이 해의 연호를 흥원(興元) 원년으로 바꾸면서, 이를 기념하여 대사면을 내리면서 작성한 것이다.

〈봉천 개원 대사면령(奉天改元大赦制)〉⁷⁾

문하성에 하달 :

치세가 이르게 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정성을 다하는 것에 달려 있으니, 자기를 잊고 타인을 도와주며 과실을 고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리라. 짐은 대업을 이어받아 지키고 만방에 군림해오다가, 조종의 흥복을 지키지 못하고 초개처럼 방황했다. 선인의 덕을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지나간 일들은 더 이상 과녁치 말고, 영원히 허물을 생각하여 앞으로 회복을 기약하고자 하노라. 그 시작을 분명히 밝혀서 천하에 보여주노라.⁸⁾

사면령의 첫머리다. 덕종 입장에서, 선조가 전해준 흥복과 대업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반란군이 일어나서 이를 피해 우왕좌왕 방황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날의 수습을 기약하고자 한다는 뜻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조종은 덕을 넓히고 백성을 보호하여, 화평한 시대에 풍속과 교화를 이루고 도탄의 시대에 생명을 구하셨으니, 공적과 경사가 거듭 쌓여 200년 지속되었다. 너희 공경과 백관 및 억조창생은 대대로 혜택을 누리며 지금에 이르니, 만인에게 공이 있고 후대에게 은택을 남겼다. 나와 같은 어린 자식에게 대권을 주어

7) 《陸贄集》, 卷 1, 制誥.

8) 〈奉天改元大赦制〉: 「門下: 致理興化, 必在推誠; 忘已濟人, 不吝改過。朕嗣守丕構, 君臨萬方, 失守宗祧, 越在草莽。不念率德, 誠莫追於既往; 永言思咎, 期有復於將來。明徵厥初, 以示天下。」 이후 이 문장에서 인용할 경우 편명을 일일이 쓰지 않고 '앞의 문장'이라고 함.

서 큰 업적을 있게 하였으니, 나는 덕을 잊지 못할까 두려워, 감히 대만히 할 수 없었다.⁹⁾

덕종(742-805)은 779년 37세 때 대종(代宗)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다. 양염(楊炎)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용조 세법을 폐지하고 양세법을 도입하였으니, 당대 세법의 중대한 변화였다. 대종이 번진의 세력을 묵인했던 것과 달리 덕종은 번진의 세력을 약화시켜 중앙집권 강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번진의 세력은 이미 통제가 쉽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반기를 들었다. 결국 수도 장안을 점령한 반란군에 밀려 봉천으로 피난까지 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깊은 궁 안에서 자라고 나라를 경영할 임무에 어두웠었다. 습벽이 쌓이고 안이함에 탐닉하여, 평안한 시기에 처하였기에 위협이 올 것을 잊었다. 농사짓는 자의 간난을 몰랐고, 군대 복무하는 자의 노고를 살피지 않았다. 은택이 아래에 미치지 못하고, 할 말이 위로 통하지 못해, 매사가 막히고 사람들은 의심을 품었다. 자기를 살필 줄 몰라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방에서 병사를 징발하여, 천리길을 다니며 분투했다. 전차를 동원하게 하고 전마를 끌어대게 하여 원근에서 소란했고, 물자를 나르고 전송을 하느라 많은 서민들이 힘들었다. 혹은 하루에 여러 번 창칼이 부딪치기도 했고, 혹은 연년토록 갑주를 못벗기도 했다. 제사를 지내려 해도 제주가 없고, 집에는 의지할 자가 없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헤어지고 유랑하여, 원망의 기운이 맺혔다. 전쟁의 징발이 끊이지 않아서 눈발은 온통 황폐했다. 폭압적 명령은 가림주구보다 준엄했고, 피곤한 백성은 벼들보다 더 말랐다.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다니다 죽어 구덩이에 묻히고, 고향 마을 언덕에는 사람 자취 끊어졌다. 하늘이 위에서 견책해도 짐은 깨닫지 못했고, 백성이 밑에서 원망해도 짐은 알지 못했다. 순치되었던 자들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읍에서 변란이 일어났다. 도적들이 이 틈을 타 반역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수치심도 두려움도 없이 감히 능멸과 폄박을 행하여서, 만물이 질서를 잃고 9묘(廟)가 놀라서 떨었다. 위로는 조종을 욕되게 하였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저버렸다. 마음이 아프고 얼굴이 부끄러우니, 죄는 실로 내게 있다. 부끄럽고 슬픈 심정, 마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듯했다. 다행히 천지가 복을 내려주고 귀신과 사람이 협력 모의하고, 장군과 재상이 정성을 다하고 무인들이 힘을 내서, 대도들을 물리쳐서

9) 앞의 문장: 「惟我烈祖, 邁德庇人, 致俗化於和平, 拯生靈於塗炭, 重熙積慶, 垂二百年. 伊爾卿尹庶官, 洎億兆之衆, 代受亭育, 以迄于今, 功存于人, 澤垂于後. 肆予小子, 獲纘鴻業, 懼德不嗣, 罔敢怠荒。」

황제의 위엄을 세웠다. 영원히 지속될 뜻을 키우고자, 마땅히 새로운 조령을 반포해야 한다.¹⁰⁾

궁중에서 태어나 궁중에서 생활함으로써 세상 물정을 모른 점, 태평성대에 자라서 비상시국에 대비하지 못한 점, 농부와 군인의 노고를 살피지 않은 점, 상하의 소통에 힘쓰지 않은 점, 전란을 자초한 자신의 과오를 조목조목 나열하여 친하에 밝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황제가 반란을 평정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성격의 조령을 ‘죄기조(罪己詔)’라고 하기도 했다.¹¹⁾

이렇게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에게 부여된 휘호를 반납하기까지 한다.

짐은 새벽에 일어나도 저녁에 누울 때도 염려하며 오직 이전의 잘못을 생각했다. 그런데 공경과 백관이 여러 차례 상소하여 고집을 부리며, 분에 넘치게도 짐에게 휘호(徽號)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받지 않겠다고 굳게 사양하자 결국 여론의 논의에 부처기에 이르렀다. 어제까지 내심으로 살펴보니 참으로 두렵기만 했다. 가늠할 수 없는 음양의 조화를 체득하면 신(神)이라고 하고, 천지(天地)와 덕이 부합되면 성(聖)이라고 하는데, 짐의 일천한 배움과 우매한 식견을 생각하면 마땅히 받지 않아야 한다. 문(文)은 교화를 완성하는 것이고 무(武)는 난리를 평정하는 것인데, 지금은 교화가 널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난리가 일어났으니, 모두의 마음을 따르다며 헛된 미칭을 구차하게 받아들이면 나의 부덕함을 더 키우고 오로지 부끄러움만 더욱 커질 뿐인 것을 더더욱 어찌 따를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이후로는 조정 안팎에서 올리는 상소문에서 성신문무(聖神文武)라는 호칭을 더

10) 앞의 문장: 「然以長于深宮之中, 暗于經國之務。積習易溺, 居安忘危。不知稼穡之艱難, 不察征戍之勞苦。澤靡下究, 情不上通, 事既壅隔, 人懷疑阻。猶昧省己, 遂用興戎。徵師四方, 轉餉千里。賦車籍馬, 遠近騷然, 行齋居送, 衆庶勞止。或一日屢交鋒刃, 或連年不解甲冑。祀奠乏主, 室家靡依, 生死流離, 怨氣凝結。力役不息, 田萊多荒。暴命峻於誅求, 疲疇空於杼軸。轉死溝壑, 離去鄉閭, 邑里邱墟, 人煙斷絕。天譴於上而朕不悟, 人怨於下而朕不知。馴致亂階, 變興都邑。賊臣乘釁, 肆逆滔天, 曾莫愧畏, 敢行凌逼, 萬品失序, 九廟震驚。上辱于祖宗, 下負於黎庶。痛心視貌, 罪實在予。永言愧悼, 若墜深谷。賴天地降祐, 神人叶謀, 將相竭誠, 爪牙宣力, 屏逐大盜, 載張皇維。將弘永圖, 必布新令。」

11) 邵冲, 〈策略與情感雙絕的合璧之作 - 讀陸贄〈奉天改元大赦制〉〉, 《秘書工作》, 2003년 8期.

이상 쓸 수 없다.¹²⁾

과오를 반성하고, 휘호를 반납하고, 이어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대로인 게 아니라 시기의 변화에 따라 변다하고, 하늘의 도는 이미 숨어서 어지러운 옥사가 넘쳐나게 되었다. 짐은 이미 큰 덕으로 사람을 인도하지도 못했고 또한 통일된 법으로 대중을 통치하지도 못했다. 촘촘한 그물을 설치하여 죄 없는 자들이 걸려들게 하였으니, 부모가 되어서 참으로 부끄러움과 슬픔만 더해질 뿐이다!」¹³⁾라고 하여, 사면의 필요성을 얘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사면의 자세한 항목을 말한다.

이제 상원통력(上元統曆)에 따라서 새해와 새 삶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으니, 마땅히 연호를 바꾸고 관대한 정치의 은혜를 펼쳐서 백성과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천휴(天休)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천하에 대대적 사면을 내리고, 건중(建中) 5년(784)을 흥원(興元) 원년(784)으로 바꾼다. 정월 1일 여명 이전까지 사형(大辟)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자 밑으로는 죄의 경중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사면한다. 이 희열(李希烈)·전열(田悅)·왕무준(王武俊)·이납(李納) 등은 충정과 노고로 장상(將相)의 임무를 맡은 바 있으며, 대대로 공이 있어 대를 이어 번진의 기강을 지킨 바 있었다. 짐이 위무하고 지휘함에 적절한 방도를 잃고 신의와 정성이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이 의심하고 염려하게 하기에 이르고 스스로를 편안하게 지키지 못했다. 몇년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나 온 세상이 소란했다. 모든 것이 위에서 도를 잃어 밑에서 재난을 만났던 것이니, 짐이 실로 왕답지 못했던 것일 뿐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자기를 굽히고 외물에 관대한 것에 내가 어찌 인색하겠는가! 진심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호생(好生)의 덕에 부합하기를 바라노라. 이희열·전열·왕무준·이납 등과 그들이 관리한 장사(將士)·관리 등의 죄를 모두 씻어주어 각자의 작위에 복귀하게 하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대우하라. 즉시 사절을 보내서 각 도(道)로 나뉘어 가서 이것을 분명히 알리도록 하라. 주도(朱滔)는 비록 주체와 연좌되는 자이지만, 길이 멀어서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짐은 이제 지성(至誠)의 마음을 넓혀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에 힘쓰고자 하

- 12) 앞의 문장: 「朕晨興夕惕, 惟念前非。乃者公卿百寮, 累抗章疏, 猥以徽號, 加于朕躬。固辭不獲, 俯遂輿議。昨因內省, 良用矍然。體陰陽不測之謂神, 與天地合德之謂聖, 顧惟淺昧, 非所宜當。文者所以化成, 武者所以定亂, 今化之不被, 亂是用興, 豈可更徇羣情, 苟膺虛美, 重余不德, 祇益懷慙。自今以後, 中外所上書奏, 不得更稱聖神文武之號。」
- 13) 앞의 문장: 「夫人情不常, 繁于時化, 天道既隱, 亂獄滋豐。朕既不能弘德導人, 又不能一法齊衆, 苟設密網, 以羅非辜, 爲之父母, 實增愧悼!」

니, 만약 앞으로 순응할 수 있으면 역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 하남과 하북의 군사와 병마는 각자 본래 도에서 봉토와 강역을 굳게 지켜야 하리니, 서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¹⁴⁾

이 말에 따르면, 반란에 가담한 사람 중 수령급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를 사면한다는 내용이다. 통치를 잘못된 자신의 과오가 반란을 불러왔으며, 가담자는 꺾박받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가담하였으니, 호생(好生)의 덕을 발휘한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반란의 수령 주체의 동생 주도마저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체는 대역부도하여, 의리를 버리고 은혜를 멀하고, 하늘의 상도(常道)를 거꾸로 어기고 명기(名器)를 훔치고, 포악한 범죄로 능멸하고 침탈하여, 차마 말을 할 수 없이 조종에 죄를 지어, 짐은 감히 사면할 수 없다. 주체의 위협에 의하여 따랐던 장수·사병·관리·백성 및 여러 색인(色人)들은 선동과 유혹을 당했고 무서운 위세로 협박을 당했던 것이니, 스스로 새롭게 바뀔 수 있다면 모두 용서해야 할 것이다. 관군이 경성에 도착하기 전에 역적을 떠나서 귀순을 해왔고 흩어졌다가 본 도로 돌아온 자들도 모두 관례대로 사면하고, 일체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¹⁵⁾

이 사면령 전체에서 발견되는 비사면 대상은 오직 주체 한 사람 뿐이다. 장안을 점령한 이후 국호를 진(秦)으로 선포하고, 피난한 덕종을 영접한다는 구실로 봉천

14) 앞의 문장: 「今上元統曆, 獻歲發生, 宜革紀年之號, 式敷在宥之澤, 與人更始, 以答天休. 可大赦天下, 改建中五年爲興元元年. 自正月一日昧爽以前, 大辟罪已下, 罪無輕重, 咸赦除之. 李希烈、田悅、王武俊、李納等, 有以忠勞, 任膺將相; 有以勳舊, 繼守藩維. 朕撫馭乖方, 信誠靡著, 致令疑懼, 不自保安. 兵興累年, 海內騷擾, 皆由上失其道, 下罹其災, 朕實不君, 人則何罪? 屈已弘物, 予何愛焉! 庶懷引慝之誠, 以洽好生之德. 其李希烈、田悅、王武俊、李納及所管將士、官吏等, 一切並與洗滌, 各復爵位, 待之如初. 仍即遣使, 分道宣諭. 朱滔雖與賊泚連坐, 路遠未必同謀, 朕方推以至誠, 務欲弘貸, 如能效順, 亦與惟新. 其河南、北諸軍兵馬, 並宜各於本道自固封疆, 勿相侵軼。」

15) 앞의 문장: 「朱泚大爲不道, 棄義蔑恩, 反易天常, 盜竊名器, 暴犯陵寢, 所不忍言, 獲罪祖宗, 朕不敢赦. 其應被朱泚脅從將士、官吏、百姓及諸色人等, 有遭其扇誘, 有迫以兇威, 苟能自新, 理可矜宥. 但官軍未到京城以前, 能去逆效順, 及散歸本道者, 並從赦例原免, 一切不問。」

까지 진격하여 덕종 일행을 포위하기도 했으니, 주체를 처형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주체 이외에는 반란군에 가담했다라도 꺾박과 위협에 의하여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니 모두 사면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멀리 폼적된 관리는 가까운 곳으로 옮겨주고, 이미 한 번 옮긴 자는 더 가까이 옮겨주고, 이들과 연관된 가족이 있으면 역시 모두 사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말 그대로 「큰 건물을 짓는 자는 수많은 목재를 모아놓고, 남다른 공을 세우는 자는 일상의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다. 적절한 쓰임에 모든 것이 달렸으니, 인재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대폭 사면을 단행했다.¹⁶⁾

이후 반란군 진압을 위해 봉천으로 달려온 군대와 장안 진격 수복에 참여한 장수와 사병을 표창하고,¹⁷⁾ 이번 전쟁으로 목숨까지 잃은 장수, 사병, 가족 등의 장례를 귀향해서든 객지에서든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¹⁸⁾ 이후 나머지 내용을 일별하자면 다음과 같다.

군대에 필요한 물자 공급에 치중하느라 부역이 빈번히 일어나고, 관리는 이로 인해 간악한 일을 저질러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한숨쉬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 16) 앞의 문장: 「天下左降官卽與量移近處, 已量移者, 更與量移。流人配隸, 及藩鎮效力, 并緣罪犯與諸使驅使官, 兼別敕諸州縣安置, 及得罪人家口未得歸者, 一切放還。應先有痕累禁錮, 及反逆緣坐, 承前恩赦所不該者, 並宜洗雪。亡官失爵, 放歸勿齒者, 量加收叙。人之行業, 或未必兼。構大厦者, 方集於羣材; 建奇功者, 不限於常檢。苟在適用, 則無棄人。況黜免之人, 沈鬱既久, 朝過夕改, 仁何遠哉! 流移降黜、亡官失爵、配隸人等, 有材能著聞者, 特加錄用, 勿拘常例。」
- 17) 앞의 문장: 「諸軍使諸道赴奉天及進收京城將士等, 或百戰摧敵, 或萬里勤王, 扞固全城, 驅除大憝。濟危難者其節者, 復社稷者其業崇。我圖爾功, 特加彝典, 錫名疇賦, 永永無窮。宜並賜名‘奉天定難功臣’。身有過犯, 遞減罪三等, 子孫有過犯, 遞減罪二等; 當戶應有差科使役, 一切蠲免。其功臣已後, 雖衰老疾患, 不任軍旅, 當分糧賜, 並宜全給。身死之後, 十年內仍回給家口。其有食實封者, 子孫相繼, 代代無絕。其餘叙錄及功賞條件, 待收京日, 並準去年十月十七日、十一月十四日敕處分。諸道諸軍將士等, 久勤扞禦, 累著功勳, 方鎮克寧, 惟爾之力。其應在行營者, 並超三資與官, 仍賜勳五轉。不離鎮者, 依資與官, 賜勳三轉。其累加勳爵, 仍許回授周親。內外文武官, 三品已上, 賜爵一級, 四品已上, 各加一階, 仍並賜勳兩轉。」
- 18) 앞의 문장: 「見危致命, 先哲攸貴; 掩骼瘞傷, 禮典所先。雖效用而或殊, 在惻隱而何間。諸道將士有死王事者, 各委所在州縣給遞送歸, 本管官爲葬祭。其有因戰陣殺戮, 及擒獲伏辜、暴骨原野者, 亦委所在逐近便收葬。應緣流貶及犯罪未葬者, 並許其家各據本官品以禮收葬。」

한탄하며 길에서도 편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거의 소강상태로 접어들어서 함께 휴식할 수 있으리라. 점맥(墊陌)¹⁹⁾과 간가세(間架稅)²⁰⁾· 대나무· 나무· 차· 칠· 각철(椎鐵) 등 온갖 명목의 징수를 모두 폐지함이 마땅하다. 경기 내부 지역은 이번 도적에게 노략당한 지역에 속하여, 공격받고 불에 타서 평안한 집이 없고, 왕사(王師)의 보급을 맡아 하여 사람들이 거둬 노고를 아끼지 않았으니, 금년 하세(夏稅)에서 반을 감면함이 마땅하다. 짐은 흉악한 무리가 대궐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황급히 출정을 나서서 가까운 교외를 선정하여 이 읍(봉천)으로 와서 쉬게 되었는데, 군수물자를 제대로 조달하고 이로써 군대가 편안하였으니, 마땅히 이들을 포상하고 표창하고 내 잘못을 기록해야 할 것이다. 봉천(奉天)을 적현(赤縣)으로 승급하고 백성의 부역과 요역을 5년 동안 면제함이 마땅하다.²¹⁾

덕을 숭상하는 것이 교화의 급선무이고, 현자를 구하는 것이 나라의 커다란 근본으로, 이 도를 영원히 말하면서 꿈꿀 때도 생각하고 일할 때도 마음에 품는다. 그러나 경박한 기풍이 쉬지 않고 앞다투어 유행하고, 인물은 깊이 숨어 어디 어떤 인물이 있다고 들려오는 소문 없이 적막하다. 아마도 내 정성이 믿음을 얻지 못하여 아무리 찾아도 오지 않는 것이리라. 천하에서 은거하며 바른 일을 실천하고 재능과 덕망이 뛰어나고 높되 구름과 원림에 자취를 감추고 영달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소재지 수령과 관리는 그들의 성명을 모두 파악하여 올리고, 마땅히 예를 갖추어 초빙해야 할 것이다. 여러 색인(色人) 중 현량방정하여 직언과 극간을 할 수 있고 고대의 서적과 교화에 널리 통달하고 육도(六韜)· 옥검(玉鉞) 등 병서를 잘 알아서 장수를 맡길 만한 자가 있으면 상참관(常參官) 및 소재지 수령과 관리가 추천해야 할 것이다. 천하에서 부모가 없거나 노쇠하였거나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형제가 없거나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주현의 수령과 관리가 잘 살펴서 특별 구휼해야 할 것이다. 나이 아흔 이상인 자가 있으면 자사와 현령이 직접 방문하여 문안해야 할 것이다. 의부(義夫)· 절부(節婦)· 효자(孝子)· 순손(順孫)이 있으면 문 앞과 마을에 표지를 세워서 중신토록 잊지

19) 墊陌: 당대 화폐제도에서 변통 조치 중의 하나. 국가 재정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1민(緡)에서 몇 전(錢)을 공제하고도 그냥 1민(緡)으로 계산하게 했다. 1민(緡)은 1관(貫)으로, 1천 전(錢)이다. 맥(陌)은 100전이다. 제맥(除陌)이라고도 했다.

20) 間架稅: 당시 주택을 대상으로 징수하던 세법을 말한다.

21) 앞의 문장: 「自頃軍旅所給, 賦役繁興, 吏因爲姦, 人不堪命, 咨嗟怨嘆, 道路無聊, 汙可小康, 與之休息. 其墊陌及稅間架, 竹、木、茶、漆、椎鐵等諸色名目, 悉宜停罷. 京畿之內, 屬此寇戎, 攻劫焚燒, 靡有寧室, 王師仰給, 人以重勞, 特宜減放今年夏稅之半. 朕以兇醜犯關, 遽用于征, 爰度近郊, 息駕茲邑, 軍儲克辦, 師旅攸寧, 式當褒旌, 以志吾過. 其奉天宜升爲赤縣, 百姓並給復五年. 」

않게 해야 할 것이다.²²⁾

대규모 전쟁을 치른 뒤인지라 안팎으로 모두 소모하였으니, 먹는 것을 소박하게 하고 씹씹이를 절약하는 것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례의 복식을 검소하게 하고, 궁실의 화려한 장식을 하지 말고, 술선수범하여 검약의 표본이 되어, 천하의 선두가 될 것이다. 각 도에서 공물을 바치는 것은 종묘와 군대의 용도가 아니면 모두 중단하라. 내외의 관리에 남도는 인력과 백관의 운영에 불요불급한 비용이 있을 것이니, 중서문하성에서 조건을 상의하여 인원과 비용을 줄이고 보고하여야. 은택을 펼치고 포상을 행하는 것은 오직 옛 법도를 따라 할 것이다. 지금 역적의 잔재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국고가 텅 비어 바닥나서 경축하고 상을 주는 것에 차질이 있어서 마음 속에 깊이 부끄럽다. 사면 문서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종류와 사례를 열거하여 보고하라. 감히 사면 이전 일로 서로 말을 꺼내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죄로 죄를 물으리라. 산과 물로 도망하여 무기를 감추고 있으면서 100일 동안 자수하지 않으면 처음대로 죄가 회복될 것이다. 사면 문서는 하루에 500리를 전달하여 먼 곳 가까운 곳 어디에든 포고하여 모두 듣고 알 수 있게 하라.²³⁾

육지는 젊었을 때부터 재능으로 명성을 날려서, 덕종이 동궁에 있을 때 이미 그의 명성을 들었고, 즉위한 뒤 그를 불러 한림학사에 임명했다. 덕종이 육지를 신임하고 육지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육지는 건중 원년(780) 한림학사부터 시작해서 정원 10년(794) 지정사로 파직되기까지 장장 15년 동안 정책 최고결정 그룹의 핵심에 있으면서 군국 대사의 모의와 결정에 참여했다.

22) 앞의 문장: 「尙德者, 教化之所先; 求賢者, 邦家之大本。永言茲道, 夢想勞懷。而澆薄之風, 趨競不息, 幽棲之士, 寂寞無聞。蓋誠所未孚, 故求之未至。天下有隱居行義、才德高遠、晦跡丘園、不求聞達者, 委所在長吏, 具姓名聞奏, 當備禮邀致。諸色人中, 有賢良方正, 能直言極諫, 及博通墳典達於教化, 並洞識韜鈴堪任將帥者, 委常參官及所在長吏聞薦。天下孤老鰥寡惻獨不能自活者, 並委州縣長吏量事優恤。其有年九十已上者, 刺史、縣令就門存問。義夫、節婦、孝子、順孫, 旌表門閭, 終身勿事。」

23) 앞의 문장: 「大兵之後, 內外耗竭, 貶食省用, 宜自朕躬。當節乘輿之服御, 絕宮室之華飾, 率已師儉, 爲天下先。諸道貢獻, 自非供宗廟軍國之用, 一切並停。應內外官有冗員, 及百司有不急之費, 委中書門下即商量條件, 停減聞奏。布澤行賞, 仰惟舊章。今以餘孽未平, 帑藏空竭, 有乖慶賜, 深愧于懷。赦書有所未該者, 委所司類例條件聞奏。敢以赦前事相言告者, 以其罪罪之。亡命山澤, 挾藏軍器, 百日不首, 復罪如初。赦書日行五百里, 布告遐邇, 咸使聞知。」

육지는 학문과 수양이 깊고 재능이 남달랐을 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정통하고 매사에 심모원리를 하면서 시기와 형세를 살피고 권도와 변화에 통달했다. 그래서 그의 공문서는 내용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득실을 분석 논의하고 시폐를 간파 지적하고 정책을 기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²⁴⁾

종합하면 그는 국가 경영과 업무 완성의 요체, 인재 등용과 여론 청취의 방법, 변방 치안과 무인 통솔의 방책, 검소 절약과 국민 안전의 방법, 왕덕 전파와 원국 복속의 계책 등 현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흥망치란과 관련된 많은 심도 있는 견해와 사상을 드러냈다.

Ⅲ. 사면 문서의 형식

사면 문서의 형식을 파악하기 위해 〈봉천 개원 대사면령(奉天改元大赦制)〉 시작 부분 원문을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 A. [4-4-4-4] 致理興化，必在推誠；忘己濟人，不吝改過。
- B. [4(5)-4-4-4] [朕]嗣守丕構，君臨萬方，失守宗祧，越在草莽。
- C. [4-6-4-6] 不念率德，誠莫追於既往；永言思咎，期有復於將來。
- D. [4-4] 明徵厥初，以示天下。
- E. [4-4-6-6] 惟我烈祖，邁德庇人，致俗化於和平，拯生靈於塗炭。
- F. [4-4] 重熙積慶，垂二百年。
- G. [4(6)-4(5)] [伊爾]卿尹庶官，[洎]億兆之衆，
- H. [4-4-4-4] 代受亭育，以迄于今，功存于人，澤垂于後。
- I. [4-4-4-4] 肆予小子，獲纘鴻業，懼德不嗣，罔敢怠荒。
- J. [6(8)-6-4-4] [然以]長于深宮之中，暗于經國之務。積習易溺，居安忘危。
- K. [7-7-4-4] 不知稼穡之艱難，不察征戍之勞苦。澤靡下究，情不上通。
- L. [4-4-4-4] 事既壅隔，人懷疑阻。猶味省己，遂用興戎。
- M. [4-4-4-4] 徵師四方，轉餉千里。賦車籍馬，遠近騷然，
- N. [4-4-7-7] 行齋居送，衆庶勞止。或一日屢交鋒刃，或連年不解甲冑。

24) 鄭力戎, 〈治亂之龜鑑, 政論之典範 - 論陸贄的駢體奏議〉, 《浙江學刊》, 1996年 第3期, 總第98期.

- O. [4-4-4-4] 祀奠乏主, 室家靡依, 生死流離, 怨氣凝結。
- P. [4-4-6-6] 力役不息, 田萊多荒。暴命峻於誅求, 疲甿空於杼軸。
- Q. [4-4-4-4] 轉死溝壑, 離去鄉閭, 邑里邱墟, 人煙斷絕。
- R. [8-8-4-4] 天譴於上而朕不悟, 人怨於下而朕不知。馴致亂階, 變興都邑。
- S. [4-4-4-4] 賊臣乘釁, 肆逆滔天, 曾莫愧畏, 敢行凌逼。
- T. [4-4-5-5] 萬品失序, 九廟震驚。上辱于祖宗, 下負於黎庶。
- U. [4-4-4-4] 痛心覩貌, 罪實在予。永言愧悼, 若墜深谷。
- V. [4(5)-4-4-4] [賴]天地降祐, 神人叶謀, 將相竭誠, 爪牙宣力。
- W. [4-4-4-4] 屏逐大盜, 載張皇維。將弘永圖, 必布新令。

4언 대구를 기본으로 하여, 중간중간 5언·6언·7언·8언 대구를 섞어 썼다. 지명, 관직 나열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8언 이상 대구는 보이지 않는다. 5언·6언·7언·8언 대구에서는 전치사·접속사 등 허사를 자유롭게 활용했다. 표면적 글자수로만 볼 때 대구를 이루지 않은 것은 B·G·J·V인데, 이후 여러 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어를 제시하는 경우(B), 앞 구에서 주어를 제시하고 뒤 구에서 접속사를 제시하는 경우(G), 이후 여러 구에 적용되는 접속사를 제시하는 경우(J), 이후 두 구가 목적어여서 앞에 동사를 제시하는 경우(V) 등이었다.

또한 마지막 문단을 예로 보면, 대구를 이룬 곳과 대구를 이루지 않은 곳이 번갈아 진행되면서 글을 맺었다. 전체적으로는 짝을 이룬 구문들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 산체(散體)를 섞음으로써 정련된 감각과 기운찬 느낌을 모두 갖추었다. 이러한 육지의 변문에 대해서 예로부터 여러 평가가 있었다.

첫째, 번다한 문장을 해체하여 간결한 문장을 융합하는 형식을 취했다.²⁵⁾ 「4-6」(또는 「4-7」 「4-8」) 구문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전통 변문에서 기본적으로 「4-4」 구문이 반복되면서 중간중간 「4-6」 구문 또는 다언구(多言句)를 첨가했다. 이로 인해 육지의 변문은 화려함을 벗어나서 평이하고 기세있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둘째, 전고의 사용을 줄였다. 위진남북조시대 이래로 변문은 전고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활력을 잃음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다. 육지는 변문이 다양한 구문을 함유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화려한 전고를 사용하지 않고 평이한 언어를 사

25) 莫山洪, 〈論陸贄的“駢中求散”與中唐文章的變化〉, 《柳州師專學報》, 第27卷, 第1期, 2012년 2월.

용함으로써 훨씬 이해하기 쉽게 했다.

셋째, 대구가 단조롭게 반복되는 형식을 피하고 중간 중간 산체를 섞었다. 이것은 문장이 단조로운 박자의 반복에서 벗어나 기세와 변화를 담게 했다. 당송 이후 변문과 산문의 영역 분리가 엄격해지고, 변문은 이른바 ‘대아’에서 언급되는 것을 수지로 여기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중당의 육지만은 예외였다. 후대에 변문가 고문가 할 것 없이 그의 변체 공문만은 모두 진귀하게 보고 추앙하고 숭상했다.²⁶⁾

IV. 문학사적 의의

육지 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육지가 작성한 사면 문서에 대한 반응을 우선 살펴 보자.

(육지가) 황제에게 말한 적이 있다.

“지금 도적이 천하에 널려 있으니, 마땅히 스스로 통렬히 잘못을 뉘우쳐 인심을 감화시켜야 합니다. 예전에 성탕(成湯)은 자기에게 죄를 물어 흥하였고, 초나라 소왕(昭王)은 나라를 떠나 피난했다가 선을 말한 한 마디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폐하께서 진심으로 과실을 고치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시고 천하에 사과를 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신으로 하여금 붓을 들어 피하는 것 없이 쓰게 해주시고, 반란의 무리가 마음을 바꾸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황제가 그 말에 따랐다. 그리하여 봉천에서 하달한 제고를 보고 나면, 아무리 드세고 사나운 무인 병졸이라 할지라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 없었다. 나중에 이포진(李抱眞)이 입조하여 황제에게 보고했다.

“폐하께서 봉천·산남(山南)에 계실 때 하달하신 사면령이 산동에 도착했을 때, 그 내용을 들은 사졸들이 모두 감격하여 울면서 분연히 떨쳐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때 신은 도적이 저희를 이기지 못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자들은 흥원 연간(784) 난리를 평정한 공이 비록 직접 싸운 무인들이 힘들 다하긴 했지만 육지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²⁷⁾

26) 鄭力戎, 〈治亂之龜鑑, 政論之典範 - 論陸贄의駢體奏議〉, 《浙江學刊》, 1996年 第3期, 總第98期.

27) 《新唐書》, 157卷, 列傳82, 〈陸贄〉: 「嘗爲帝言: “今盜遍天下, 宜痛自咎悔, 以感人心. 昔成湯罪己以興, 楚昭王出奔, 以一言善復國. 陛下誠不吝改過, 以言謝天下, 使

육지가 작성한 사면 공문서는 단순한 공문서를 넘어서서 정부군을 격려하고 반란군을 회유하는 효과까지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왕이 명령을 반포 하달하는 조령(詔令)이나 신하가 대책을 보고하는 주의(奏議) 등은 공문서로, 실용적 문체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대의 문학이라는 관념에 의해 공문서를 대하려고 하면, 이러한 공문서에는 시문에서 드러나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수사와 감흥이 없다고 여기기 쉽다. 또한 소설이나 희곡처럼 서사와 서정을 담은 생동하는 형상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²⁸⁾ 《문심조룡》에서도 황제의 명령인 제조(制詔)는 장엄한 의미와 저항할 수 없는 권위를 갖추어야 하며 천하와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보편성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²⁹⁾

육지의 문장을 살펴보면 황제 대신 작성한 조령이 70여 편, 신하로서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이 60여 편이다. 육지는 중당 시기 덕종을 위해 문서를 작성한 대표적인 인물로, 실용적 기능을 갖추면서도 이치로 설득하고 감정을 불러오는 표현 효과를 성취한 공문서를 작성했다. 그가 작성한 문서는 황제의 조서이자 정부의 공문으로, 논리와 서정을 갖추고 있어서 서로 보완과 상승의 효과를 발휘하여, 황제 명령의 권위도 잃지 않으면서 민심에 감동을 안겨주기도 하였다.³⁰⁾

조령이라는 명령형 문장은 사실 감정적 색채가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육지는 덕종 입장에서 국기를 염려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마음을 결합시키고 자신의 충정과 동정이 녹아들게 함으로써, 본래 딱딱하고 메말랐던 정부 공문서에 감정적 색채를 깃들였다.

육지가 작성한 공문서가 후세에 추앙받는 것은 사회적 의의와 사상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이기도 하다.³¹⁾ 변문은 논리적 설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문으로 의론문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육지의 공문서가 바로 좋은 예이다. 육지가 작

臣持筆亡所忌，庶叛者革心。”帝從之。故奉天所下制書，雖武人悍卒無不感動流涕。後李抱眞入朝，爲帝言：“陛下在奉天、山南時，敕令至山東，士卒聞者皆感泣思奮。臣是時知賊不足平。”議者謂興元戡難功，雖爪牙宣力，蓋贄有助焉。」

28) 孟慶陽, 〈唐代奏議文研究述評〉, 《時代文學》, 2012年 6月.

29) 《文心雕龍》, 第十九, 〈詔策〉.

30) 韓建永, 〈論陸贄的制狀〉, 《牡丹江教育學院學報》, 2005年第4期, 總第92期, 2005年.

31) 鄭力戎, 〈治亂之龜鑑, 政論之典範 - 論陸贄的駢體奏議〉, 《浙江學刊》, 第3期, 總第98期, 1996年.

성한 공문서는 변체 형식을 구사했지만 서사와 서정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을 뿐 아니라 논리적 서술도 유창하고 적절하게 구사하여, 변체로 작성한 정론의 모범이 되었다.

육지가 작성한 사면 공문서의 특징 및 성취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본다. 첫째, 전고와 수식을 많이 쓰지 않고 자유자재로 운필하여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다. 둘째, 사건의 서술과 논리의 분석이 치밀하고 타당하다. 셋째, 황제를 대필해 썼지만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어 곡진하고 절실하다. 넷째, 산체와 변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종합하면, 육지는 변체와 산체의 요체를 잘 파악하여 창조적으로 섞어서 잘 결합시켰다. 이에 따라 그의 공문서는 정련되고 질서있고 리듬이 선명한 변체의 특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창하고 시원하고 기세가 넘치는 산체의 장점도 겸하고 있어서, 산문화된 새로운 변체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陸贄, 《陸贄集(上·下)》, 中華書局, 2010년 10월 2쇄.
 《舊唐書》, 中華書局, 1975년.
 《新唐書》, 中華書局, 1975년.
 司馬光, 《資治通鑑》, 中華書局, 2009년.
 劉勰, 《文心雕龍》中州古籍出版社, 2008년.
 莫山洪, 〈論陸贄的“駢中求散”與中唐文章的變化〉, 《柳州師專學報》, 第27卷, 第1期, 2012년 2월.
 韓建永, 〈論陸贄的制狀〉, 《牡丹江教育學院學報》, 第4期, 總第92期, 2005年.
 孟慶陽, 〈唐代奏議文研究述評〉, 《時代文學》, 2012年 6月.
 鄭力戎, 〈治亂之龜鑑, 政論之典範 - 論陸贄的駢體奏議〉, 《浙江學刊》, 第3期, 總第98期, 1996年.
 邵冲, 〈策略與情感雙絕的合璧之作 - 讀陸贄〈奉天改元大赦制〉〉, 《秘書工作》, 8期, 2003年.
 侯吉永, 〈帝王罪己詔文體的頒布活動分析〉, 《蘭臺世界》, 南京師範大學, 2008년 12월.

田恩銘, 〈“龍虎榜”與中唐文體文風改革的演進〉, 《殷都學刊》, 제3기, 2008년.
陳德長, 〈陸贄駢文簡論〉, 《重慶師專學報》, 제18권 제3기, 중경, 1999년.
于景祥, 〈陸贄與唐代駢文革新〉, 《遼寧教育學院學報》, 제4기, 1990년.
黃慶豐, 〈陸贄的奏議對古代公文發展的影響〉, 《新聞愛好者》, 2010년 8월.

【中文提要】

《陸贄所撰赦免詔令》

中唐時期陸贄學問淵博, 修養深厚, 兼有才智, 熟悉時務。陸贄以能文顯名, 德宗在東宮的時候已經聽到陸贄的聲譽, 即位就招陸贄爲官。因爲德宗信任陸贄、依靠陸贄, 陸贄就從德宗建中元年(780)到貞元十年(794)長達十五年的時間, 幫助德宗治國, 參與國家大事。

德宗建中四年(783)涇原發生兵變, 叛軍進攻長安, 德宗出宮逃難, 到達奉天。叛軍推崇朱泚爲帝, 朱泚接受, 國號爲秦。德宗被封閉在奉天, 想要挽回政局, 決定施行大規模的赦免, 讓陸贄起草赦免詔令, 于是陸贄寫了一篇詔令名篇《奉天改元大赦制》。

陸贄代替德宗撰寫詔令, 對德宗的要求, 第一項是忏悔以前的過失, 第二項是施行大規模的赦免來收拾民心。所以陸贄以駢體寫了一篇既明确提示時務又感情色彩丰富的公文名篇。陸贄作爲以后古文大家的師表, 名副其實。

陸贄所撰的公文, 代皇帝寫的詔令有70多篇, 以臣下上皇帝的奏議有60多篇。他是中唐時期爲德宗撰寫公文的代表人物, 他寫的公文既實用价值挺高, 又說理抒情丰富, 一面沒有失去帝王權威, 一面帶來叛軍共同感動。

詔令是命令文章, 原來是沒有感情色彩的, 但是陸贄站在德宗的立場, 結合憂國憂民的心情, 給公文帶來丰富的感情色彩。陸贄把握駢體和散體的特色, 創造出來駢散兼美的公文佳作。

【主題語】

육지, 공문, 사면, 변문, 조령

陸贄, 公文, 赦免, 駢文, 詔令

Amnesty, Rescript, Amnesty Rescript, Lu Zhi(陸贄), Tang China

| |
|---|
| 투고일: 2015. 7. 15 / 심사일: 2015. 7. 20~8. 5 / 게재확정일: 2015. 8. 10 |
|---|